

잠녀 유네스코 등재 국회도 나선다

길정우 의원 다음달 11일 추진 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대표 여성문화 국가적 공감대 형성 등 시동

등록 : 2013년 11월 18일 (월) 20:07:14 | 승인 : 2013년 11월 18일 (월) 20:30:29

최종수정 : 2013년 11월 19일 (화) 12:36:34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 잠녀·잠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 작업이 점화된다.

18일 국회 길정우 의원(새누리당, 서울시 양천구갑)과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 등에 따르면 내달 11일 국회에서 '제주잠녀 유네스코 등재 추진 전략 정책토론회(가제)'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 잠녀·잠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관심을 중앙에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잠녀를 단순히 제주의 문화유산이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중심의 해양 공동체 문화'로 각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는 사진예술가 준초이(본명 최명준·61)씨와 이선화 도의원 등의 역할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대표 사진 예술가 중 한 명인 준초이 작가는 무도에서 제주 잠녀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고 있다. 정작 제주도로부터는 프랑스 현지에서의 잠녀 전시 등에 대한 협조를 얻지 못했지만 길 의원에서 '잠녀·잠녀문화 정립'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관심을 유도했다.

이선화 의원 역시 제주를 찾은 길 의원에게 '제주잠녀'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등재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 이번 토론회 참가자로 제주 추진 과정을 전달하게 됐다.

길 의원은 "한일의원연맹활동을 하면서 일본에서 아미(해녀)가 대중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인상깊었다"며 "체민일보 등 지역언론과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원조 격인 국가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